

“수도권 소재 교회 비대면 예배만”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 대국민 담화

인천 추가, 실내 50·실외 100인 모임 원칙적 금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 적극적인 참여 호소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오늘 0시 현재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으로 세자리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장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장 큰 집단감염 사례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명부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와 격리가 필요한 교인 및 방문자들을 신속히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교인들이 전국에 분포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됩니다.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선

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 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

치는 내일 8월19일 수요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극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출퇴근과 같은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시행을 위해 세부 지침을 충실히 준비하여 주시고, 꼼꼼히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검찰·경찰·지자체 등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나의 일상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의 신천지 교회별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될 때 우리는 대구사람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품격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시민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간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수많은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역시 다르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동참과 실천을 제차 당부드립니다. /뉴스1

“국·공립과 차별없는 동등 지원을”

김종식 도의원,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 모색 공청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군산2)은 18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혁신 전북 유아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최인숙 교수(호원대 유아교육과)와 이영주 교수(비전대 유아교육)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는 전북교육청 예산과장 박종배, 학교교육과 김정희 장학관과 김정희 회장(전북여성협의회), 오성진·최소라(학부모대표), 김혜란(유치원 교사대표), 온정아(전북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가 참석했다.

최인숙 교수는 “20세에서 39세를 일컫는 말인 밀레니얼 세대의 70.8%가 자신의 민족과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기르는 책임의 국가적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사

립유치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인색하다”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어 교육청 관계자들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당장에 전액 지원이 이뤄지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어디를 다니든지 동등한 지원을 받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의원은 “국·공립단설유치원 원아당 교육비는 학부모부담금과 국가지원금 및 교사인건비를 포함해 10만1,100원이지만 사립유치원 원아당 교육비는 학부모부담금과 바우처금액을 포함해 53만 6,379원에 불과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빈약한 상황”이라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자치입법 분야 연구활동 토론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이남숙 의원)’가 18일, 5층 소회의실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입법연구회와 조례 입법 등 자치입법 분야 연구활동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1년부터 제9대, 제10대, 제11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연구활동을 지속해 나름의 성과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의 선진적인 연구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실용적인 자치입법 활성화를 이끌 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또 향후 의원 조례 입안 시스템을 함께 논의해 지역 간 공동연구주제 선정 후 상호 연구 교류

방식도 함께 협의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그 성격이 같은 의원연구단체 간 상호연구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조례연구회 이남숙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조례 입안부터 지역 특성이 적용된 실용적 제도화 방안 연구에 앞장서기 위한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타 지방의회 연구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조례 입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이정린 도의원, 농어촌공사 남원지사·동화댐 현장 방문

도내 농업관개용수댐 중 하나인 남원 동화댐이 이번 호우기간에 수문개방도 못한 채 댐이 자연적으로 흘러넘치는 상태 그대로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소 홍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댐 저수용량을 최대한으로 채워놓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폭우로 인해 유입량이 많아지자 순식간에 만수무구에 도달, 월류 즉 유입량 그대로 방류하는 바람에 홍수피해

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것이 이정린 도의원의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남원)는 수해원인조사를 위해 지난 14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 삼진강댐지사를 방문한데 이어 18일 남원 수해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동화댐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와 동화댐 현장을 방문하는 등 댐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한 열 일 행보를 이어갔다. /유호상 기자

민주 도당 상무위 20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무위원회(대의원대회 대체)가 오는 20일 개최된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내린 호우 피해가 급증하면서 연기됐던 전북도당 상무위원회가 20일 오후 2시 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리게 된다.

당초 예정됐던 당대표 후보 및 최고위원 후보의 합동 연설회는 전북지역 호우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지원봉사 등이 전개되면서 공식적인 합동 연설회는 중앙당 홈페이지로 연설 장면이 방송되면서 가뭄하게 됐다. 또한 이번 전북도당의 상무위원회(대의원대회 대체) 행사 역시 최근 코로나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도당은 최소한의 상무위원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상무위원회(대의원대회 대체)에서는 새로 선출된 신입 도당위원장에 추진전에 대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상무위원회(대의원대회 대체)는 민약의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예방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남원시의회 의원, 수해복구 특별성금 기탁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18일 오전 남원시를 방문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성금을 기탁했다. 남원시의원 16명 전원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의정활동비를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또한 남원시의원들은 연일 각 지역구 수해현장을 방문해 일손을 돕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12일에는 의원 전원이 제방 붕괴로 피해가 극심한 금지면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13일에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향의 방문해 책임인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유)늘숨건설 공동 캠페인